

특허권과 도메인 네임도 담보로 쓴다

특허 기술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이 대출금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상당히 낮다. 우수한 특허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특허청 산하 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과 알선으로 실시되고 있다.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되려면 담보 물건이 감정 평가를 거치는 관례에 따라 특허 기술도 먼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을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처럼 특허 기술은 전문 연구 기관, 시험 기관 등이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대행한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산업 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 기관, 정부 출연 연구소 등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해당 발명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한다. 평가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교안)은 금융 기관에 사업화 자금을 우선 지원 요청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선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가 있다.

특허 기술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알선 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청한다. 이때 평가수수료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발명 평가 신청 자격자는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특허·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또는 전용(독점) 실시(사용)권을 소유한 자로 한정한다.

도메인을 담보로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

평가기관은 기술성의 수준, 기술의 활용성, 기술의 파급성, 제품 생산의 가능성 등 종합적인 기술성을 비롯해 시장성, 경쟁력, 사업 추진 능력 등을 평가한다. 기술성 평가는 국립 공업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 화학시험연구원, 한국 인삼초연구원, 한국 해양연구소, 한국 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 원자력연구소,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 자원연구소, 한국 화학연구소, 한국 전기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등에서 담당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성을 평가한다.

평가가 끝난 기술 특허는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 센터가 권리 양도, 실시권 허락, 합작 투자 등 실시를 알선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은 특허권을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우대 보증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 센터(02-551-5571/2)로 문의하기 바란다.

심지어 인터넷 도메인도 특허권·부동산처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은행과 인터넷프라자시티(www.internetplaza.co.kr)는 도메인을 담보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출 금액은 (주)인터넷프라자시티에서 감정한 평가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3천만 원까지이다. 대출 보증 역시 인터넷프라자시티에서 대행한다. 대출 대상은 www.chosun.com처럼 com 도메인과 해당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지만, 앞으로 net와 co.kr 등 다른 도메인까지도 점진적으로 담보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 기관을 만들어 도메인 가치를 평가할 예정이다. 1999년 국내에서도 도메인이 3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서는 가상 공간을 날아다니는 권리만으로 재산 증식과 담보 활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작은 발상 하나가 개인과 기업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 미래의 도전 영역이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